

90년대 '포스트 페미니즘'의 다양한 빛깔

이론과 흥미 조화된 고른 영역의 출판 기대

이문열씨의 장편소설 《선택》을 계기로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일부 여성작가의 작품명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의 '천박한 페미니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이 책은 '여성의 자아 성취'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성취가 가장 크고 아름답다는 논지를 폈다. 이에 방송인 전여옥씨와 문학평론가 고미숙씨는 소설의 화자가 혼령인 것을 빔대 "가부장제의 명령이 배회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 사회가 오랫동안 남성을 위주로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한, 시대착오적인 구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박한 페미니즘이라고 지칭된 여성 수기와 전문적 여성의 성공담은 비판받을 만한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담은 이론서들과 페미니즘 문학, 성문화에 대한 조류를 담은 다양한 페미니즘 관련서적은 그 의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정신분석학, 포스트모더니즘, 성을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여성학과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70년대 이후 여성학과의 개설되고 여성개발원 등의 단체가 발족되었으며, 80년대 들어 학생운동과 진보적 페미니스트들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세상의 절반'인 여성문제에 관심을 돌렸다. 그동안 페미니즘 관련서적은 대형서점의 서가를 한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늘었지만 이론서는 너무 전문적이고 대중서적은 너무 가볍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0년대 들어 두드러진 흐름은 현대사회의 새 조류인 포스트모더니즘과 정신분석학의 융성이 페미니즘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이다. 크리스테바를 비롯한 일단의 이론가들이 각 문화이론의 한 장을 담당하며 현대사회를 진단했다. 정정호 교수의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과 크리스 위든의 《포스트구조주의와 페미니즘 비평》 같은 책들이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부각되는 여성성과 페미니스트 비평을 소개했다.

최근 출간된 루시 구디슨의 《여자들의 꿈》(또하나의문화)은 프로이트 정신분석에 반기를 든 책, 여성의 꿈을 여성적 관점에서

해석한 흥미로운 책이다. 여성들의 꿈에는 임신과 양육, 어머니와 딸의 관계, 여성 사이의 우정과 성에 등 남성들은 겪어보지 못한 문제들이 담겨 있다.

캐롤린 라마자노글루의《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문예출판사)는 페미니즘 이론의 한계와 갈등, 대안과 전망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반성과 실천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저자는 여성들간에도 이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유된 억압 외의 사항은 페미니즘 이론만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계급 노동 권력 국가 민족 인종 문화 이데올로기 성 등에 의해 야기되는 여성들 간의 차이를 섬세하게 검토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페미니즘 이론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관심을 갖는다.

성, 여성, 여성성에 관한 서적도 많이 늘었다. 현대사회에서 넘쳐나는 성담론은 성의 상품화와 여성을 스스로 옥죄는 이데올로기를 낳는 등 여성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성의 상품화나 성관련 담론은 90년대 초반에 나온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와, '또하나의문화'에서 펴낸 무크지 《새로 쓰는 성 이야기》(91)부터 시작된다.

《새로 쓰는 성 이야기》는 여성의 목소리로 여성이 보고 느낀 '섹스 이야기'를 펼쳤다. 필립 아리아스 등의 글을 모은 《성과 사랑의 역사》(황금가지)는 성과 사랑에 관련된 금기사항들이 서구에서 어떻게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왔는지 항목별로 소개하고 있다.

그밖에 《성에의 사회사》《창부》《성의 역사》《침실의 문화사》《포르노 그레피》(이상 동문선) 등이 있으며, 《성과 미디어》《섹슈얼리티:성의 정치》(현실문화연구) 등의 성담론 이론서가 있다. 성에의 철학적 의미를 다룬 주요 저작물로는 조르주 바타이유가 쓴 《에로티즘》(민음사)을 들 수 있고, 최근의 책으로 헤리엇 길버트의 《그림으로 보는 성의 여성사》(까치)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과 관련된 문화와 역사를 만화와 함께 다루고 있다. 박종성(서원대 정의과)교수가 쓴 《권력과 매춘》(인간사랑)은 한국에서의 매춘 문제가 권력과 어떻게 음성적으로 '공생'하고 있는지를 파헤쳤다.

최근에는 페미니즘 이론을 '소설'로 형상화시킨 작품도 많이 나와 일반독자들에게

최근 출간되고 있는 페미니즘 관련서들은 정신분석학, 포스트모더니즘, 문학과 영화, 환경이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쟁점화하는 특징을 지닌다.



페미니즘 관련서가 활발히 나오고 있다.

깊이있게 접근하고 있다. 버지니아 울프의 《속상하고 창피한 마음》(하늘연못)과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 《도둑 신부》(문학사상사)같은 소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한다.

여성심리의 섬세한 변화를 포착한 《속상하고...》는 울프의 후기 단편 18편을 모았다. 그녀의 소설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끝없는 생각의 반주다. 남성위주의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있지만 결코 여성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편협한 시각은 아니어서 '인본주의자' 관점이라 보는 것이 옳다.

문학과 영화, 영화에도 투영

캐나다의 대표적인 작가이며 시인인 마거릿 애트우드의 《도둑신부》는 토니, 캐리스, 로즈 등 세 여인과 이들에게 온갖 사악한 짓을 저지르는 지니아를 통해 여성의 정체성과 확대된 의미의 자매애를 다룬 작품이다. 여성의 자아정체성 탐색과 타인에 대한 이해라는 애트우드의 작품세계가 잘 드러난 소설로 주제의식이 투쟁적 정치구호가 아니라 미학적이고 시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한 소설적 장치로 포장돼 있다. 우리 소설로는 《니그로, 방광염, 페미니즘》이라는 신지형의 소설이 이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차별받고 있는 여성의 고뇌를 다루었다.

대안동화에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작업도 두드러진 현상. 《정치적으로 울

바른 베드타임스토리》 시리즈와 최근 한국 여성개발원에서 펴낸 <성평등 대안동화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그것. 동화 속에서의 공주는 언제나 백마 탄 왕자님을 만나 결혼하며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대요'로 이야기가 끝난다. 그러나 현실은 동화와 다르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별거와 이혼, 염문설로 얼룩진 결혼생활을 한다.

이들 성평등 대안동화는 대부분 동화 원전의 스토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주와 왕자의 남녀역할 전도, 상징물 대치 등으로 정반대의 결말을 유도한다. 또 성차별의 희생대상은 남녀 모두라는 관점에서 성별에 따라 삶의 양식을 제한하지 말 것과 양성적 역할을 습득하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화를 통한 페미니즘 논의도 활발하다. 김소영 교수가 쓴 《시네마, 테크노 문화의 푸른 꽃》(열화당)과 《시네-페미니즘 대중영화 꼼꼼히 읽기》 등은 '시네 페미니즘'이 60년대 이후 진보적 사회운동과 같은 맥락 속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80년대로 들어서면서 페미니즘 영화는 인종·계급·대중매체 등의 문제에 파고들었고, 90년대 들어 등장한 '포스트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비판의 초기 모습을 넘어 여성들간의 다양한 차이를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고 저자는 분석했다.

프랑스 여성작가 소설 활발

다양한 소재, 내밀한 묘사로 본질적 문제 다뤄

그밖에 원용진 교수 등이 펴낸 《대중매체와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영화/여성》도 영화에 드러난 페미니즘과 문화비평적 시각을 보여주는 책들이다.

환경, 교육 등 영역 넓혀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페미니즘의 전체와 단면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저작들도 나오고 있다. 페미니즘 이론을 사전에 담은 《페미니즘 이론 사전》(삼신각)도 흥미롭다. 동 런던 폴리테크닉대 여성학과 교수인 페미니즘 비평가 매기 험이 발표한 《The Dictionary of Feminist Theory》(91)를 심정순 교수(숭실대 영문과)와 엄경숙 교수(숙명여대 영문과)가 2년동안 공동으로 옮겼다.

환경운동 역시 페미니즘과 연결되고 있는데, 이론화 작업의 결과물로 펴낸 《여성환경운동에 나서게 되었으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 환경운동에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밝혔다. 여성학계는 또 교육에도 관심을 보인다. 조혜정 교수(연세대 사회학)가 최근 펴낸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또하나의문화)는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갖는 등 이 사회의 공존과 정화를 위한 여성의 각성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페미니즘 서적을 '천박' 운운하는 것은 '페미니즘'을 잘 팔리는 문화상품으로 인식, 상업주의에 이용하는 왜곡현상 때문이다. 실지로 서점가에 여성관련 서적이 많은 것은 주구메층이 20대 젊은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들을 타깃으로 한 여성취향의 환상적인 성공담이나 매끄러운 문체의 작품들이 선호되고 있다. 좋은 '여성학 관련서'는 오히려 남성들에게 읽힌다.

'또하나의문화'의 대표 유승희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 "여성학이 대중과 좀더 가까워져야 하며 페미니즘이 특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고르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마정미 기자

프랑스 문학계에도 여성작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들 책은 저속한 페미니즘을 벗어나 사회적, 생물학적 차이를 넘은 인간의 내면과 본질적인 여성성 문제를 다루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 소설의 영역을 보여준다.

뛰어난 20세기 여성 문호들

현대 프랑스 여성작가 11명의 작품 13권을 묶는 '프랑스여성작가소설선' (열림원) 1차분 세권이 출간됐다.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고통》,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세사람》과 《알렉시》.

서구에서는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사회의식과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이 결합하면서 페미니즘이 각 문화영역에 타올랐다가 이제는 따로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만큼 성숙되고 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시리즈를 기획한 이재룡 교수(숭실대 불문과)는 "남성작가가 빠진 선집이지만 프랑스문학의 반쪽이 아니라 문단의 전모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20세기 여성문학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고통》은 40년 가까이 숨겨 두었던 일기를 바탕으로 쓴 자전소설. 2차대전중 수용소에 갇힌 남편을 기다리며 아내가 쓴 고백체 작품이다.

남성적인 스케일의 작가로 알려진 유르스나르의 《세사람》은 1차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전쟁의 피해함과 이념의 갈등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한 소녀와 두 청년의 사랑과 우정을 담은 소설이고, 《알렉시》는 동성연애자가 아내와 아이의 곁을 떠나며 아내에게 보내는 고백형식의 편지로 솔직하고 성숙된 목소리로 성문제와 유년시절의 청교도적 문화를 다룬 작품이다.

프랑스 현대문학의 특징 중 하나는 작가들 자신의 고백을 문학으로 형상화했다는 점. 이 세권의 책 역시 1인칭의 고백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작가의 독특한 문체미학이 드러난다. 유르스나르의 남성적이고 조심스러운 문체와, 동어반복과 침묵, 생략과 리듬감 등으로 감동을 더하는 뒤라스의 문체 속에 이들이 다룬 다양한 쟁점과 정치적 이념, 인간본연의 가치와 본질 탐구가 녹아



왼쪽 왼쪽부터
뒤라스·
유르스나르·
비구르·브리작.

있다.

이들 작품 외에 마리 카르디날, 아니 에르노, 나탈리 사르트, 클레르 갈루와 등 현존작가 9명의 소설 10권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열린책들도 프랑스어권 여성작가들의 작품 출간을 기획하고 있는데, 에밀리 노동의 《사랑의 파계》(살인자의 위생학) 등 5권을 오는 9월경 출간할 예정이다.

젊은 작가의 다양한 단행본도 선보여

단행본으로는 뒤라스의 마지막 단편소설집 《고독한 글쓰기》(창작시대사)가 나와 있다. 표제작 《고독한 글쓰기》에서 작가는 "진정한 글쓰기란 고독에서 잉태된다. 쓴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소리없이 울부짖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뒤라스의 다른 작품이 그렇듯 읽기가 만만치 않지만 간결한 문체, 파편화한 이미지의 조립,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등 뒤라스문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카트린 비구르의 《톨스토이를 생각하세요》(영림카디널)는 여성이 갖는 섬세한 감성과 남성적인 거대서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자괴감, 열정, 광증, 욕망 등 인간의 감정을 뒤흔드는 일곱 편의 이야기로,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고뇌했던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이미지와 문구를 차용하여 한편 한편

일상 이야기에 적용했다.

신진작가 아니에스 데자르트의 《아름다운 비밀》(프레스21)은 일상과 환상, 자연과 초자연이 공존하고 있는 소설이다. 아들과 아버지, 교사와 제자간의 애증과 화해가 다루어진 이 소설은, 숨겨둔 소녀의 영혼이 가브리엘이 에밀의 친자가 아니라는 '중요하지 않은 비밀(Un Secret sans Importance)'을 거두어 간다는 내용이다.

연초 출간된 준비에브 브리작의 소설 《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황금가지)는 사춘기 소녀의 거식증을 통해 인생의 이쁨을 들여다보는 성장소설. 더 이상 자라지 않기로 마음먹고 최소한의 음식만을 섭취하는 13살 소녀 누크가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과 거기 투사된 어른들의 세계만은 아니다.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수차례 뒤바뀌는 이 소설은 인간의 내면으로 끝없이 숨어들어가는 사춘기 소녀의 내밀한 의식을 정치하게 묘사했다.

이들 프랑스 여성작가의 소설은 종종 여성 문제로 등치되는 '과도한 감성'이나 '여성성'을 특징으로 삼지 않는다. 감성과잉은 없되 치밀하고 내밀한 묘사가 다양한 주제를 빛낸다. 작가들 대부분이 파리고등사범 학교 출신이거나 교수자격자 등 인텔리인 점도 특징이다.

— 마정미 기자